

<성명서>

이제 조직의 원상복구를 논의할 때이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 계획' 전면보류 결정을 노사간 극한 대립을 막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다. 또한 회사가 조직개편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노동조합과 조직개편 전으로 원상복구하는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회사의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 계획'은 조직개편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조직을 더욱 기형화 시킬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권역대표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지역본부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향후 지역본부까지 축소 및 폐지될 소지가 다분한 변형된 신조직 개편일 뿐이다. 특히 권역내의 인사·승진·인력 및 사업조정 등 사실상 영업소사장제와 다름없다. 이는 지난 2003년 4월 23일 분사화 및 영업 소사장제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는 노사합의를 명백히 위배한 것이다.

둘째, 망과 지사를 영업으로 예측시키는 등 비균형적 조직 성장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럴지 않아도 망·지사의 인력 분할손이 심각해 도급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인력만 더욱 비대해지고 망·지사는 영업지원부서로 전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편법적 상품판매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강제상품판매는 KT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문제로 회사도 이미 그 폐해를 인정해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제야 현장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 또다시 영업위주의 매출을 강조해 KT구성원 전체가 강제상품판매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2003년 조직개편은 현장의 전문화·일원화를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조직개편 후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기형적 구조만을 낳았다. 이로 인해 시너지 효과보다는 개별부서의 연계가 단절되고 인력분할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양산됐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대토론회나 지재식 위원장과 이용경 사장 면담 등에서 조직개편 전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제 조직을 2003년 개편 전으로 원상복구하고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장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회사는 더 이상 실패한 조직개편에 연연하지 말고 노동조합과 함께 조직의 원상복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2004년 12월 3일

KT노동조합

<성명서>

조직개편 더 이상 밀실에서 날조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과 회사의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03년 조직개편의 문제점은 만천하에 알려졌다. 지사, 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업, 영업의 도움이 없어 스스로 NC(Network Consultant) 활동을 벌이는 망, 전송분야를 두고 인력분할손에 허덕이는 지사. 이것이 KT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과정상의 문제'라거나 조직개편이 완성되면 달라질 것이라며 얼버무리곤 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략적 경쟁지역 영업력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사측은 사실상 2003년 조직개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면서도 공론화 되는 것을 꺼린 것이다.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밀실에서 '얼렁뚱땅' 계획을 수립하고 막무가내식 집행을 한다는 점이다.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조직의 스트레스는 만성화 되고 업무효율은커녕 조직의 전반적인 사기를 떨어뜨리고 만다. 또한 종사원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고 현실의 불안요소만을 피하기 위해 급급하게 되는 것이다.

KT는 10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조직이다. 그만큼 바탕이 탄탄한 조직인 것이다. 그러한 조직을 단지 '전문화'라는 명분으로 단시간에 재구성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단지 문제가 아니라 역효과만 양산되어 전혀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임시방편적 조치는 오히려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잘못된 솔직히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회사가 공식적이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는 12월 10일이면 KT 창립 23주년이다. 노동조합은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노와 사가 함께 하는 KT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04년 12월 8일

KT노동조합

창사 23주년 기념품비 지급기준

2004.12.10 창사 23주년을 맞이하여 창사 기념품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는 임직원, 청원경찰
- 계약기간 또는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계약직원(전문계약직 포함)
 - 단 파견업체 계약직은 제외

■ 지급금액 : 1인당 5만원

■ 지급방법 : 월드패스카드 충전(지급)

■ 지급일 : 2004. 12. 9

■ 예산항목 : 비급여성복리후생비/창사기념품비

지재식위원장 대만 중화전신공회 조합원 총회 참석



지재식위원장은 5일(일요일) 타이베이시 원산공원에서 열린 대만중화전신공회 제1회 조합원총회에 연대와 지지를 위해 참석, 통신민

영화 문제에 대한 발언을 했다.

중화전신공회 장서중 위원장은 “회사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참석해주신 조합원께 감사하다”고 밝힌 뒤 “정부의 통신민영화에 맞서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파업 투표는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의 힘을 결집해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다”라며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대규모 인력의 축소를 가져오고 조합원들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기성 외국자본은 투자보다는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등 막대한 국부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합원은 지도부를 신뢰하고 단결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화전신공회는 대만 최대 노동조합으로 47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파업찬반 투표결과 총 조합원수 28,310명 중 17,356명이 참가해 17,118명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한편, 대만은 조합원 총회에 정부관료까지 참석하는 등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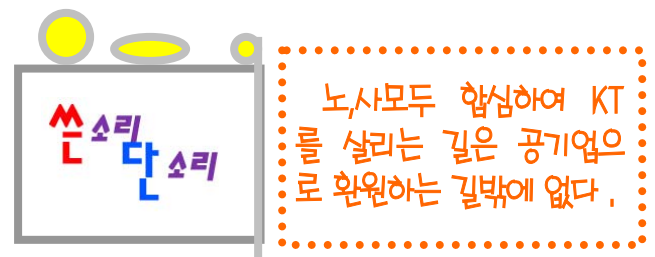
IT연맹 홍보·선전·정보화 담당자 회의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은 7일 KTF노동조합에서 열린 IT연맹 홍보·선전·정보화 담당자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04년 하반기 투쟁관련 홍보선전활동 평가 및 단위노동조합 현안 공유 ▲연맹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홍보·선전·정보화 활동가 조직방안 및 홍보·선전·정보화 일꾼학교 계획 수립 ▲홍보선전정보화 교안 작성 추진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맹 홈페이지는 조합간부를 주요대상으로 하고 사회적 이슈, 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반면 단위노동조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양방향 커뮤니티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차기 회의에서는 홍보선전 조직화 계획과 연맹 및 단위노동조합의 구체적인 홈페이지 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 노동조합 게시판 2004-12-07]

현재 KT는 위기의 길을 걷고 있다. 단지 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규제를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심한 인력감축압박을 받고 또한 최근 인사비리 고발건으로 회사내외로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KT를 공기업으로 환원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작년에 지재식위원장이 노무현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다소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노무현대통령은 KT와 포철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외자에 넘길 수는 없다고 하였다.

현재 조합원과 관리자모두는 왜 공기업으로 환원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신분보장이 어렵다. 둘째. 과장급이상은 모두가 계약직으로 편입되어 신분이 불안함

셋째. 엄청난 정통부 규제로 인하여 매출은 제자리이고 인원감축을 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모두가 버티기 힘들다.

우선 노조와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현재 지재식위원장은 노무현대통령과 면담도

4주간KTTU

하였다. 또한 현재 검토중인 사항이므로 노사모두가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위하여 지재식위원장과 이용경사장을 밀어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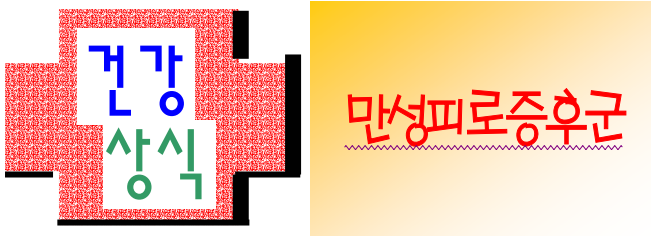
회사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신념아래 회사를 살리는 노력을 우리 모두 하여야 한다.

실제로 공기업으로 환원되면 상상해보라!

직장분위기, 업무의 강도, 스트레스, 인사문제, 고용보장, 상품판매 등에서 벗어날수 있다.

우리 조합원과 회사간부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에 달려있습니다. 회사와 나와 가족이 삼위일체입니다. 우리가 공기업으로 환원될수 있도록 조합원여러분이 합심하여 노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간부사원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입니다. 아들, 딸과 가족을 위하여 공기업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기업인 KT와 포철을 외자로 팔아먹지 않고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처:파란 건강상식]

최근 법원이 '만성피로증후군'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삼 이 질병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정의와 발병원인, 치료법 등을 살펴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CFS:Chronic Fatigue Syndrome)'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6개월 이상 심한 피로감이 지속되고 ▲충분한 휴식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며 ▲50% 이상의 활동력 상실과 함께 피로를 호소해야 한다.

또한 이들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적어도 다음의 10가지 신체증상 가운데 8 가지 이상이나 나타나거나, 6가지 이상의 신체증상과 2가지 이상의 신체적 증후(症候)를 동반할 때 만성피로증후군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CDC가 제시한 신체증상은 △미열 △목의 통증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통증 △전신적인 근육 쇠약감 △근육통 △지속적 피로감 △두통 △관절통 △신경정신과적 증상(눈부심.건망증.주의력집중장애.우울증 등) △수면장애 등이다.

신체 증후로는 △가벼운 정도의 열(37.6-38.6도) △인후염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만져질 때 등이 제시됐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감염성 질환과 면역 체계 이상, 내분비대사 이상 등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만성 피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는 내분비대사질환(당뇨병.갑상 선질환), 심혈관질환(고혈압.동맥경화증), 호흡기질환(만성기관지염.폐기종), 혈액 질환(빈혈), 감염질환(결핵.간염), 암 등 수많은 질병이 거론되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감기 같은 증상을 앓거나 급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발병하며 때로는 만성적으로 서서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 병은 평균 2년 6개월간 지속되며 결국에는 자연 회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첫 3~6개월은 급성기로 질병이 빠르게 진행되고, 나머지 3~20개월은 천천히 회복되다가 마지막 6개월에 걸쳐 안정을 되찾는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은 다른 원인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며, 만약 원인질환을 찾을 수 없다면 미국 CDC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만성피로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일 치료법은 아직 없다.

통증이나 발병이 있을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가 막힐 때는 항히스타민제, 비충혈억제제 등이 각각 사용될 뿐이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는 과식과 과음, 과 도한 카페인음료 섭취를 삼가야 한다"며 "지나친 휴식도 오히려 질병에 매달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적당한 운동과 식사,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스키와 온천나
들이를 즐길 수
있는 포천

[출처 : 와우트래블]

겨울만의 본격 레저 스포츠인 스키는 그 짜릿함과 심상함이 매력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좀처럼 시도하기 힘든 부분. 그러나 포천의 베어스타운은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 수 있다. 스키를 즐긴 후 차가운 겨울바람에 굳어진 몸을 풀어줄 수 있는 온천들이 포천에 여럿 있어 겨울에 포천 스키 여행을 떠나면 온천욕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베어스타운은 사계절 종합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겨울에 그 빛을 더욱 발한다. 경기권에 있는 스키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베어스타운은 11면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서울 강북권에서는 40분 정도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스키 명소로도 소문나 있다. 수도권의 다른 스키장들에 비해 다양한 난이도와 변화를 자랑하는 슬로프가 많아 즐거운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베어스타운의 특징이다.

베어스타운에서는 겨울철에 스키와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계절에는 실내수영장, 골프장, 관광리프트,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계절 휴양지로도 적당하다. 특히 연습사격, 서바이벌게임, 깃발탈취전 등 3개 교장에서 동시에 300명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서바이벌 게임을 위한 시설이 있어 동호회나 회사 연수 장소로 인기가 높다.

베어스타운에서 일동방면으로 47번 국도를 이용하여 25분 정도 달리면 용암유황천이 나타나는데 이 곳 주차장에 자동차전용극장인 빅시네가 있다. 규모 4700평에 420대가 동시에 주차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데 입장료는 자동차 1대당 받는다. 따라서 4인 가족이 갈 경우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최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보통 상영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8시부터 1일 3회 정도 상영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극장의 특징은 탁트인 야외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이밖에도 연인의 경우 둘만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실내 극장에 가기 힘든 부부가 이용하기에도 편하다. 그리고 365일 연중무휴이며 눈비가 와도 상영한다는 장점도 있다.

포천은 수도권 북부의 최고 온천 지역. 특히 일동온천지구에는 소문난 온천들이 모여 있어 온천욕만을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거리로 볼 때 서울에서 55Km, 45분 거리에 있는 온천인데다 썩은 달걀냄새가 나는 뜨거운 유황온천이 네 군데나 되므로 언제 찾아가도 편안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온천물이 피부병과 신경통에 효과가 있어 치료를 위해 찾는 사람도 많다.

일동온천지구에 있는 온천장은 각각마다 시설이 약간 다르지만 황토, 맥반석, 옥 등 한국 특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사우나, 한증막, 탕실내의 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유리 천장 아래서 썬탠을 할 수 있는 대욕장을 갖춘 업소도 있어 온천욕과 일광욕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